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1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b>성모성월 성모의 노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li> <li>●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li> <li>○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다.</li> <li>●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li> <li>○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li> <li>●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li> <li>○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li> <li>●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li> <li>○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li> <li>●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li> </ul> <p>✦ 기도합시다.</p> <p>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8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15	유 요한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22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5/29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5/1	\$326.00	\$117.00	\$1,050.00

\*미사책 대금: \$ 55.00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노인들이 사는 곳**

김 현 요셉 | 前 시그니스 회장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다른 때도 수시로 자녀들이 방문하지만, 오늘만큼은 빠지지 않고 자녀들이 음식과 꽃다 발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3년 후면 그 나이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 사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노인들만 사는 곳입니다. 한 때문으로 드나들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또 공 동 목욕탕과 공동 운동시설이 있고, 요일마다 다른 취미생 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공동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아픈 이를 돌보는 간병인(노란 조끼를 입고 있음)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도 늘어 부모를 요양원에 맡 기는 자식이 많다고 하는데, 요양원은 아니지만 이곳에도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는 곳 가까이에 노인을 위한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교회가 여러 병원을 통합·조정하는 단계에서 노인 전문병원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연령은 82세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각각의 신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 크로버스가 있어 같은 신자들끼리 모여서 성당에 가곤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생겨 그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교통편 이 갑자기 사라진 우리로서는 참여하는 미사 시간도 다르 고 성당도 달라 뽕뽕이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 다. 이곳 신자 수는 40~5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 다. 우리 본당은 노인들이 걸어가기에는 좀 멀니다. 그래서 본당 대신 지하철로 가까운 이웃 성당에 가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사이가 더 돈독해지곤 했는데, 이젠 그럴 기회가 없어 저 그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봄 하마йка 축제: 5/15 (주일)**

산클레멘테 본당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마йка 축제가 오는 5월 15일 (주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 음료수, 스푼, 접시 등을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 당일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6/2 (목) 오후 6시 30분**

6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6월 2일(목) '저녁 6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이 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진 일반 아파트에서 단둥이 살았는데, 두 사람 다 아플 때는 누가 밥을 해줄 수도 없어서 두 아들은 늘 부모님 걱정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 리가 매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주는 영양사와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는 이곳으로 이사한다고 하니, 누구 보다 두 아들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낮에는 삼삼오오 모여 게임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데, 간혹 남의 얘기를 할 때에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는 말 씀을 따라 좀 더 서로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보에서>**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고 영명축일은 무엇인가요?**

세례명이란 세례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이름이기에 가톨릭 신자들 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 다. 세례명을 정할 때는 성인의 행적이나 영성이 자신의 삶에 좋은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생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받으며 그분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의 세례명 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 축일이라 합니다.